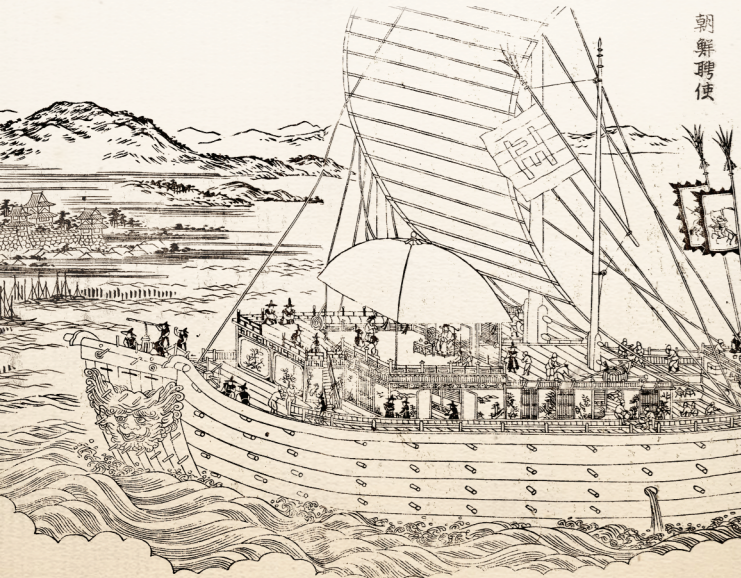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Joseon Tongsinsa,
Into the World's Arms



2016. 04.19(Tue) - 05.08(Sun)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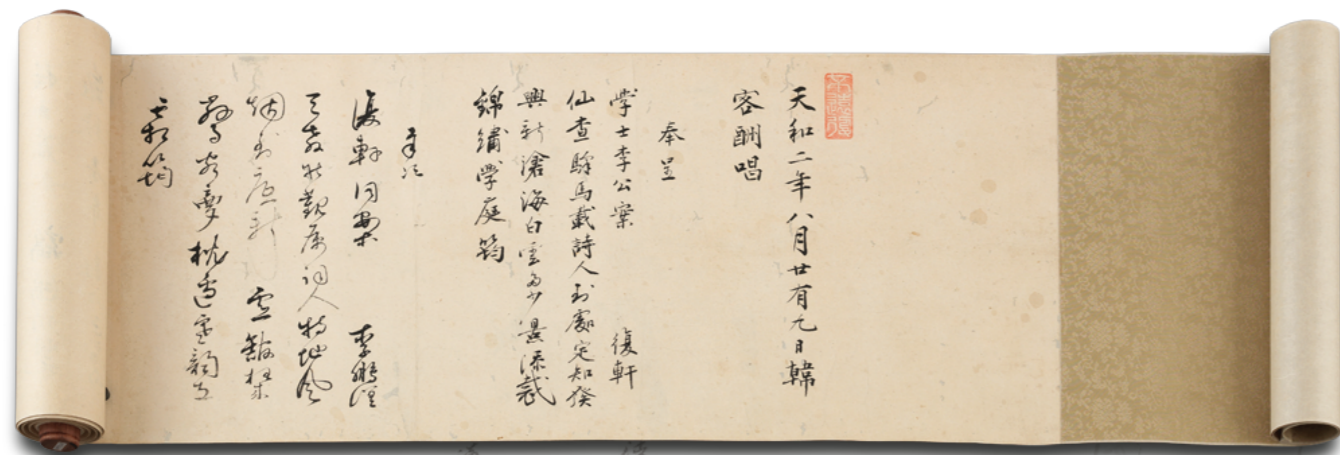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전시 소개

Exhibition Introduction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과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통해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교류하였습니다. 우호와 교류의 흔적은 문학, 그림 등 다양한 자료로 남아 한국과 일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 현재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 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며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테마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About 400 years ago, Joseon dynasty sent their Tongsinsa to Japan and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Japan based on trust. The traces of the friendly relation are remained in both countries' literatures, paintings and other references. Both countries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Joseon Tongsinsa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is thematic exhibition, <Joseon Tongsinsa, Into the World's Arms>, is held in this museum to celebrate the both countries' efforts for the designation. Through this exhibition we hope Joseon Tongsinsa would be designated as one of UNESCO's memory of world recorder. Thanks for your sincere attention and support which must be great help for it.



수창시 / 1683 / 935 x 29cm

조선통신사 수창시(朝鮮通信使 酬唱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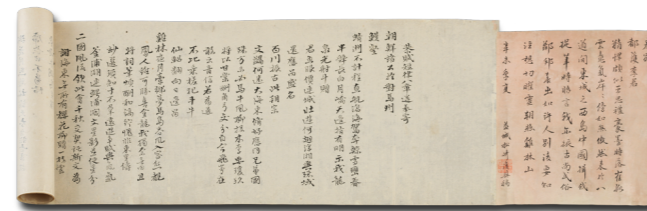
Antiphonal Poem of Joseon Tongsinsa

1682년(숙종 8)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체술관 성완(成完)과 이담령(李聃齡), 홍세태(洪世泰) 등이 일본인 야마다 겐킨(山田原欽)과 주고받은 시를 옮겨 적은 것이다. 일본 문인들에게 조선 통신사와의 문학교류는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통신사행의 한일 문학교류는 하나의 전통으로 정착되었으며, '사행문학'이라는 문학의 한 범주를 형성하였다.

조선통신사 봉별시고(朝鮮通信使 奉別詩稿)

Farewell Writing of Joseon Tongsinsa

1811년(순조 11) 일본을 방문하였던 제12차 통신사의 부사 이면구(1757~1818년)가 일본 학자들과 시문수창(詩文酬唱)을 나눈 두루마리 형태의 시고이다. 앞의 1수 봉별도호이군(奉別都護李君)은 이면구의 인품, 글씨에 대한 칭송과 이별 후의 그리움을 담고 있다. 뒤의 8수 공부단율팔장오봉기(恭賦短律八章叢奉寄)는 동래에서 대마도로 떠나는 조선통신사를 송별하면서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으로서 일본에 성대한 이름을 남길 것이라는 칭송과 양국의 우호에 대한 바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별시고 / 1811 / 143 x 28cm

This literary work of Yi Myeongu, the deputy official of the 12th Joseon Tongsinsa which visited Japan in 1811(King Sunjo's regime), is consist of poems he exchanged with Japanese scholars. It contains praises of his noble character, handwritings and their longing for him after the farewell. The poems are also saying that he would leave his honorable name in Japanese history and the wishes to continue the friendly relationship with each country.

도화소조도(桃花小鳥圖)

Peach Blossom and Birds on Silk by Lee Ui-yang

이 그림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 수행화원인 이의양(李義養, 1768~?)이 그린 것으로 꽃나무와 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좌측 상단에 '조선이신(朝鮮爾信)'이라는 이의양의 자(字)와 주문방인 2과가 찍혀 있고, 뒷면에는 도화소조도(桃花小鳥圖) : 복숭아꽃과 새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그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811년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This picture was painted by Yi Euiyang(1768~?), the painter of Joseon's envoy in 1811(the 11st year of King Sunjo), showing birds and flower tree together. His name is on the top left meaning Yi Euiyang of Joseon and the title of the picture, peach blossoms and birds, is written on the back. It is estimated that he drew the picture when he visited Japan in 1811 as a member of the dele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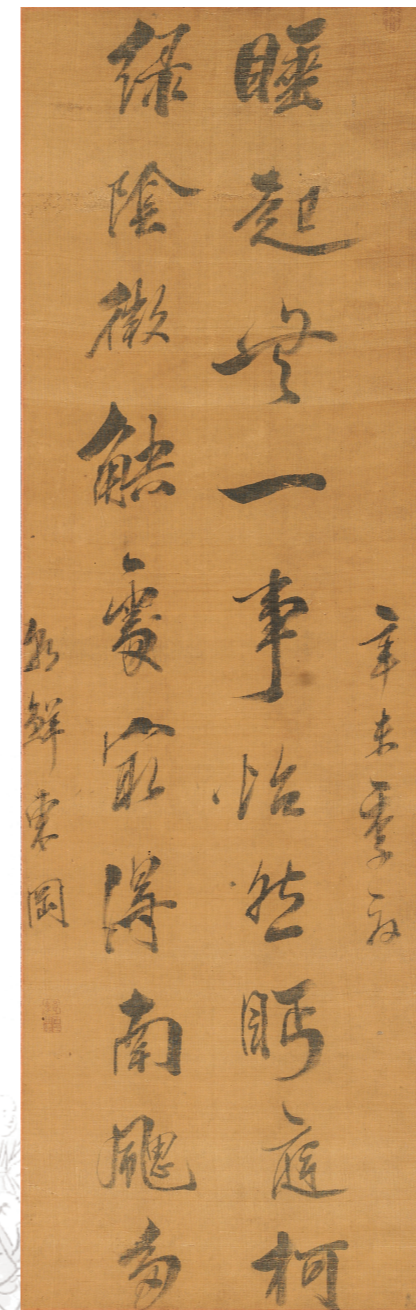
도화소조도 / 1811 / 57.1 x 167.5cm

조선통신사 시고(朝鮮通信使 詩稿)

Draft Poems of Joseon Tongsinsa

1811년(순조 11)에 통신사의 사자관(寫字官)으로 일본에 간 동강 피종정(東岡 皮宗鼎)이 쓴 오언시이다. 사자관은 각종 문서나 문헌을 기록하는 일을 맡은 중앙관원이었다. 원편에 '조선동강(朝鮮東岡)'이 부기된 것으로 보아 일본에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다.

Donggang Pi Jongjeong wrote the poem when he went to Japan as a member of Joseon Tongsinsa in 1811(the 11st year of King Sunjo). The position of Sajaguan was a main staff writing documents. Seeing the words, Joseon Donggang, was written on the left, it is estimated that he gave this poem to Japan as a present.



시고 / 1811 / 37.5 x 122.5cm

통신사선도(通信使船圖)

Painting of Tongsinsa Vessel

일본의 화가 이시자키 유시(石崎融思, 1768~1846) 작품으로 추정된다. 조선통신사행단의 한 인물로 보이는 조선인이 가운데 누각에 앉아 있으며, 그릇과 호피 의자 등 각종 기물이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배의 형태가 일반적인 통신사선의 형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용·해태 장식 등을 통해 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신사선도 / 18세기 말 ~ 19세기 초 / 54 x 79cm

Japanese painter, Ishizaki Yushi, painted this picture. Seeing the objects in the picture, it is estimated that those were made in the Joseon era. The ship looks a bit different with the typical ships of Joseon Tongsinsa but the decorations of dragon and Haetae, a mythical unicorn lion, on the ship indicate it represents Joseon.

근강명소도회(近江名所圖會)

Geungangmyeongsodohoe

본 비와코는 백제 사람이 정착했던 역사가 있으며,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거쳐가던 지역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방문 내용과 함께 조선통신사의 정사선이 뜻을 펴고 항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정사가 탄 배임을 표시하는 '正' 깃발이 있고, 사행단과 선원들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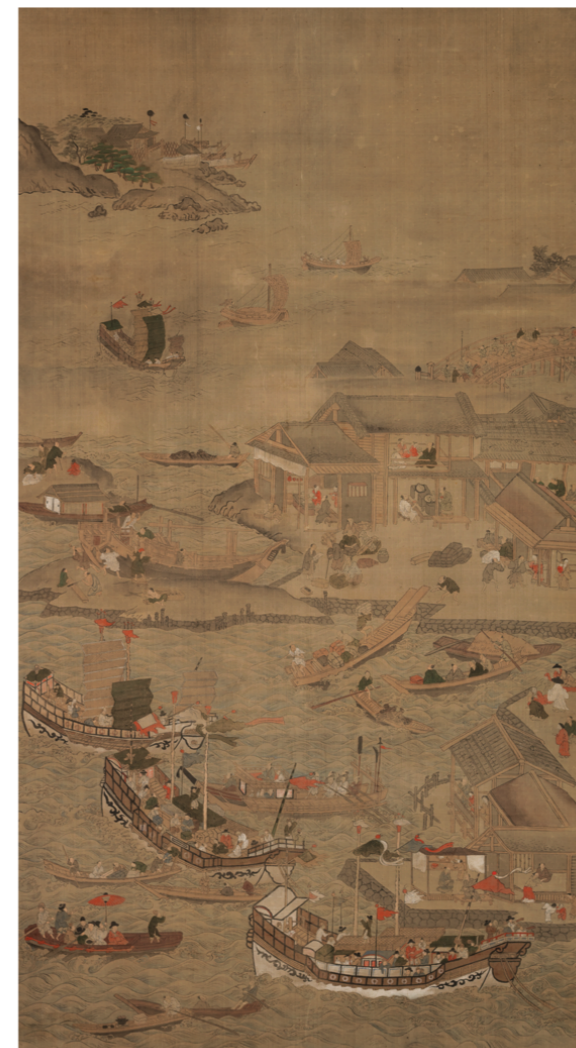
근강명소도회 / 1814 / 15 x 22cm

The head official's ship of Joseon Tongsinsa in the picture is going forward spreading the sail. The flag which has a chinese character, Jeong, meaning righteousness is standing. The members of the delegation and the sailors are depicted in detail.

통신사 선단도(通信使 船團圖)

Painting of a Fleet of Tongsinsa Vessels

입항하는 통신사선단과 항구 주변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화면 하단부에는 작은 배로 갈아타고 물으로 향하는 통신사의 모습과 통신사선에 작은 배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모습, 선상에서 일행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등 통신사가 입항하는 장면과 항구 주변 일상 모습이 풍속화적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통신사 선단도 / 18세기 / 62 x 140cm

This picture describes the coming a fleet of Joseon Tongsinsa vessels and surrounding scenery of the port. On the lower part of the picture, delegation is coming to the land after switching to a small boat. The small boats are brought near the ship unloading its cargoes. People are waiting for the other members of the Joseon Tongsinsa on board. The atmosphere of the arrival and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in the port are depicted with the style of genre painting.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Joseon Tongsinsa, Into the World's Arms

